

투데이 칼럼

코멘트 스피치

현대 사회에서 의사소통의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스피치와 이미지, 감성과 표현을 중요시하는 시대에기에 한순간에 한마디로 쫓지마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은 그 사람의 매력이자 경쟁력이다. "일 잘하는 사람은 어디가 다르냐"라는 책에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 가지 능력으로 '포방력(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따라하여 자기 실력을 키우는 능력), '순서력(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에너지를 집중하는 능력), '코멘트력(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느낌을 압축된 말하기 능력)'을 말한다.

이 세가지 중 중앙인이 서양인에 비해 뒤지는 것이 코멘트력이다. 서양인은 스스로 대화를 주도하며 유머를 섞어가며 의견을 말하기에 부드럽으면서 강한 인상을 준다. 반면 중앙인은 예의와 겸손을 중시하는 전통적 화법에 익숙한 탓에 자유로운 표현이 약하다.

상대의 심리를 파악하고 대외의 완급을 조절하며 타이밍을 맞출 줄 아는 고도의 지적능력이 필요한 것이 코멘트력이다.

코멘트력을 키우는 4가지는 첫째, 자신의 코멘트를 메모한다.

코멘트는 문장으로 1~2행정도, 인



김 양 옥

한국스피치면접컨설팅 대표

터뷰리면 5~10초 정도의 길이가 적당하므로 하나의 표어처럼 상대의 폐부를 날카롭게 꿰뚫는 말을 준비하는 것이다. 또한 책을 읽고 나서 감상평을 한 두 마디로 요약해 보는 것이 좋다. 말로 중얼거리고 나면 허공에 날아가 버리므로 연습효과가 적기 때문에 꼭 주요 키워드를 글로 적어 가면서 능력을 갈고 닦길 바란다.

둘째, 말을 표현한다. 자신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만한 말을 준비해 두면 꽤 쓸모가 있다. 예를 들어 식사를 마치고 나서 "맛있었습니다"가 아니라 "고상했습니다."라고 해보자. 개성있는 말을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삼으면 대화를 풀어가기가 한결 쉽다.

셋째, 후속타를 생각하며 대화한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거나 무엇을

보고 있는 중간 중간에 미리 자신의 코멘트를 생각해 두어야 한다. 질문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이런저런 질문을 준비해 두지 않으면 자신의 차례가 왔을 때 제대로 된 질문을 하지 못한다.

넷째, 요약하지 말고 코멘트할 공리를 한다. 코멘트란 본래 요약된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므로 좋은 코멘트를 전제요약능력을 기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말한 것을 생각하는 과정이 훨씬 창조적이고 지적능력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관점이 다르면 코멘트는 달라진다. 자신은 어떤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지 대화상대자는 누구인지를 염두에 두다보면 유효적절한 코멘트가 나올 것이다.

이번에는 '하지 말아야 할 코멘트'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첫째, '인신공격성 발언'이다. 센 표현, 독설을 주고받아야 할 때 실수를 간혹 하게 된다.

둘째, '실언'이다. 말이란 얼얼히 '아' 다르고 '어' 다른데 그 구분을 못하는 경우다. 내용과 상황에 맞는 말을 여유로 갖고 말한다.

셋째, '둘러대기'이다. 자신의 행동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말하는 경우다. 진실이 드러나면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밖에도 성별, 나이, 학력, 재력에 대한 차별적 발언이나 자신을 과시하려는 말도 삼가야 한다. 상대를 꺾어 내리 자신을 높이려는 말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인격 수준만의 심받게 한다. 어디까지나 코멘트는 음식의 품격을 더하는 향신료이다. 향신료를 치기 전 정성을 기울여야 할 대상은 본래 음식의 맛이다.

그러므로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려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상대가 감탄하고 감동하고 열광하는 코멘트는 언제나 진실된 말이다. 정직한 말은 정곡을 찌르고 진실된 말 앞에서는 누구나 고개를 끄덕인다. 우리 모두 명코멘트 스피치로 감동을 주고 상호 이해하는 사자가 되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명랑하고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해보자.

사설

구글 제재와 카카오 상생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제한 구글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했다.

구글이 각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바탕으로 개발한 변형 OS도 쓰지 못하도록 한 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란 판단 때문이다. 구글이 개발 단계부터 경쟁 상품의 탄생 자체를 통제해 온 것은 혁신 저해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번 제재는 2016년 직권 조사 돌입 5년 만에 나왔다. 공평 플랫폼 기업의 황포를 견제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글은 2008년 안드로이드 OS를 출시할 땐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하고 변형할 수 있다고 표방했다. 그러나 2011년 시장지배력을 확보하자 태도를 바꿨다.

자사 OS가 없는 분야까지 갑질을 일삼았다. 모바일 OS에서 구글의 시장 점유율이 98%까지 치솟은 배경이다. 공평 플랫폼 기

업에 대한 제재는 전 세계적 흐름이다. 그러나 구글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이번 결정이 안드로이드를 위한 앱 개발 유인을 떨어뜨리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히려 소비자 선택이 넓어질 것이라 전망이 유세하다.

카카오도 골목 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카카오는 관련 사업 철수 검토와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자금 3,000억 원 조성 등을 발표했다.

카카오는 파트너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가 그나마 상생 방안을 내놓은 건 다행이다. 그러나 주요 계열사 신고 누락과 금산 분리 규정 위반 등에 대한 조사는 원칙대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구글도 개방성과 혁신성을 강조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건장한 생태계 구축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공직자의 청백리 정신

공직자의 청백리 정신이 절실하다. 청백리(淸白吏)는 우선 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

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에 대해 "주말마다 골프 접대를 하거나 경조사를 챙길 필요가 없어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늘었다" 혹은 "이제 다들 똑같이 못 하게 됐으니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았다.

반면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청탁금지법 때문에 내수경제가 더 침체됐다" 혹은 "식당에 손님이 줄어 막막하다"같은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모두가 축각을 곤두세운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청백리(淸白吏)' 정신과 의미를 살피면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때이다. 청백리가 되기 위해 반드시 가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난할지라도 부정한 돈을 탐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부를 기회와 권력을 쉽게 얻기 위해 악용하지 않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 부정한 방법을 등원하면, 눈앞에 있는 돈과 권력을 남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손에 쥌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쉽게 얻은 것은, 그만큼 쉽게 잃기 마련이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항상 청렴하고 정직한 태도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공직자에게 청탁금지법은 절대 필요한 법이다.

슬기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이다. 물론 이 법이 정착되기까지는 오랜 기간과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것이다. 현실에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적절히 더듬어가는 과정 또한 필요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이 법의 시행이 절대 필요하다. '관행' 일 뿐이라며 묵인되어 왔던 부정 청탁들이 너무 많다. 결코 당연하지 않은 것, 잘못된 것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김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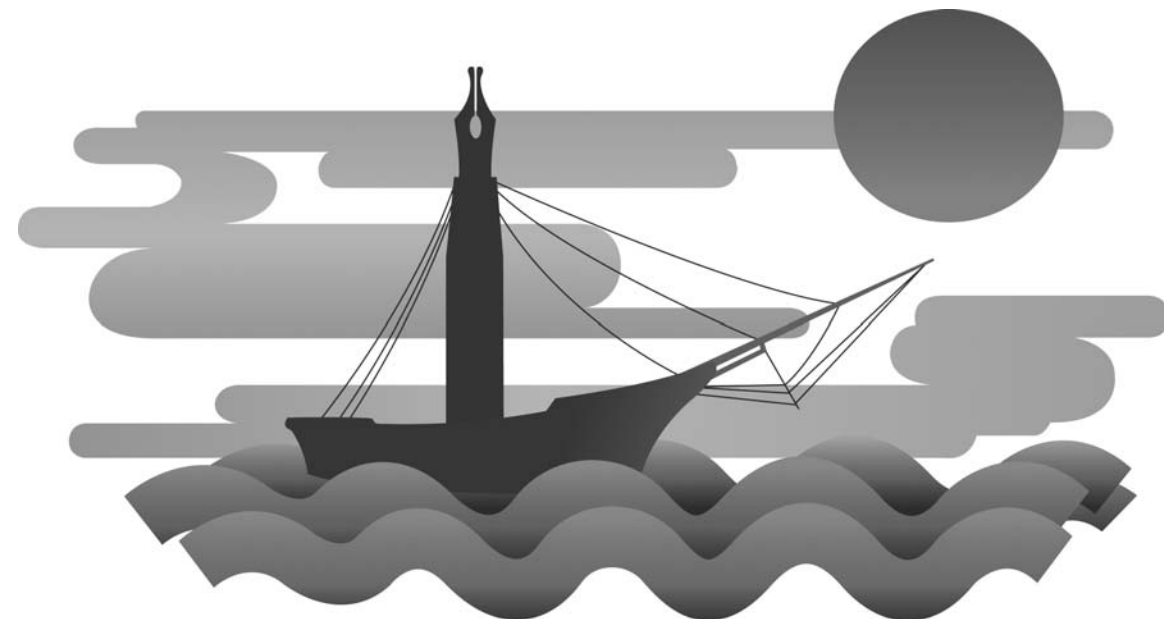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김정은(가운데)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일 평양의 3대혁명전시장에서 열린 국방발전전략회 '지위-2021'에 참석해 역대 긴장을 조성하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의도가 없음을 입증할 조치가 부족하다고 비난하면서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스라엘서 의약품 등 '배달 드론' 비행



1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국립 드론 이니셔티브 시연회가 열려 물건을 배달하는 드론이 시험 비행하고 있다. 이번 시연은 이스라엘 전역에 물건과 의약품을 배달하기 위한 무인기 조종 프로그램의 세 번째 시험 비행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